

특특뉴스

‘금배추’ 도매가 작년대비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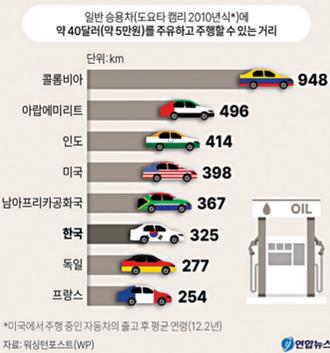
올해 봄철 가뭄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 배추 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 엽근채소 7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kg 기준 1만5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90.9%, 평년보다는 39.0% 각각 상승한 것이다.

연구원은 8월에도 배추 출하량이 작년보다 7.9% 감소하면서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에도 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8,69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데다 재배면적 자체가 감소하면서 배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경제

주요국 기름값, 같은 돈으로 얼마나 갈 수 있나?



기름값 5만원에 한국 325km 주행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한국, 프랑스,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기름값을 비교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도요타 캠리 2010년식)에 40달러(약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40달러로 398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에서 같은 돈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325km에 불과해 미국보다 73km 적다.

“끊임없는 개발...환경미화원 안전·편의 확보”

힘내라! 중소기업

에이엠특장

작업자 탑승공간 청소차 개발
국내 최대 점유율로 업계 선도
무인노면청소차 실증 진행 중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현장 작업자 입장에서 연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고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한 ㈜에이엠특장 윤홍식 대표의 포부다.

1999년 설립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본사를 둔 ㈜에이엠특장은 작업자의 별도 탑승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에 이어 완전 자율주행 노면청소차량 등을 개발하며 국내 환경차량 생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윤 대표는 “기존 청소차량은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매달린 채 이동하고 작업해야 했고, 골목과 경사가 많은 한국 지형에 맞지 않아 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2018년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는 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압착·압축진개차, 음식물쓰레기수거차, 암롤트럭, 재활용수거차 등을 생산하는 에이엠특장은 지난해 473대 차량을 판매하며 2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용인원도 꾸준히 확대돼 69명의 직원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청소차는 에이엠특장이 지난 2018년 환경부와 함께 연구한 선진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발의 결과물이다.

에이엠특장은 한국형 청소차에 적재·압축·수송·배출 등 전자동 시스템과 각종 안전장치를 탑재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했다.

에이엠특장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는 차량 측면에 작업자가 탈 수 있는 별도의 탑승공간을 확보했으며, 작업자가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



㈜에이엠특장 김병구 부장이 에이엠특장 본사에서 ‘무인 노면 청소차’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에 가려질 경우를 대비한 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 쌍방향 통신시스템을 탑재했다.

운전자와 작업자의 조작 시스템도 분리했다. 운전자가 작업자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후미 덮개 역할을 하는 ‘파카’를 내리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설계했다. 조작 스위치는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눌러야 하며, 파카가 내려오는 도중에도 비상 정지시킬 수 있도록 무릎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 안전멈춤 바 등 안전장치도 설치했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9년 광주 서구가 지역 최초로 6대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광주지역 15대를 포함한 전국 총 120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큰 공로를 세운 에이엠특장은 2019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 2020년 광주시장 표창 수상, 광주시 지역스타기업 선정,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튜닝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에이엠특장은 또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무인 노면 청소차 개발을 주관했다. 무인 노면 청소차는 GPS, LiDAR 센서 등이 탑재돼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달리며 스스로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으로, 노면 청소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12월 광주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착수하고 있는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에이엠특장을 포함한 15개 전문기업이 참여했으며, 내년까지 시험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엠특장은 향후 친환경 환경청소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달리는 차량이 주력인만큼 전기차, 대형 수조트럭 등 친환경 차량을 개발 중에 있으나 현재는 배터리 단가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지자체, 기관, 기업들과 협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신개념 차량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상의, 부가세 신고 교육 내일 김우택 회계사 초청 강의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부가세 신고 전 핵심 체크 포인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까지인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를 앞두고 부가세 신고 절차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제1기 확정신고에 적용되는 개정법 ▲과세거래 ▲과세표준과 세액 ▲예정 및 확정신고 회계 처리 예시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는 SBS CNBC의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방송 ‘절세미남 절세미녀’의 고정 패널로 출연한 진성 회계법인인 김우택 회계사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무본부(062-350-5883)로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음색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DSPACK (주)디에스팩 (주)대성포장산업 OFFSET C18

- 무동판 인쇄: 음색인쇄를 통한 음판비 절감
-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ECO 우리의 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 지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